

교회목표

- 1. 천국일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특
혜
작
전
보

6일 새벽 5시 전교인 총동원령 발령

■ 흥해작전 메시지



가나안을 향한 진군에 낙오자 없기를 !

이 중 윤 목사

누가 오늘의 현실을 총체적 난국이라고 규정하였습니까.

애굽을 떠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끝장이 난다면 애굽에서 나오지 않은 것만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소원하는 이 시대의 가나안은 복음화된 통일 조국이고, 우리들이 바라는 가나안은 거들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2000년대를 향한 구체적인 비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절대 신앙, 절대 순종, 절대 충성'의 자세로 행군을 계속해 나갑시다.

흥해작전은 개인적으로는 회개 운동이며, 교회적으로는 갱신 운동이며, 사회적으로는 개혁을 재촉하는 천국시민 생활운동입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충현의 온 가족들은 물론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나안을 향한 우리들의 전진을 방해하는 흥해를 가르기 위한 기도 운동이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체험한 성도들의 감사 운동이며,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나타내는 실천 운동이어야 합니다.

금년에도 제3차 흥해작전은 6월 6일을 기하여 시작됩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힘을 다해 자신을 절제하며, 힘을 다해 이웃에게 봉사하자”라는

실천 강령이 우리들 앞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위를 바라보며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모세처럼, 지금은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들은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출발하고 행군하여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무너져가는 자신을 수축하고, 이웃과 국가를 세워 가는 일에 원동력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수단은 모두 배제하고 기도로서 임해야 하겠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시비하는 일을 그치고 감사함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흥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니 구경만 하는 관중이 되지 말고 개인도, 가정도, 구역과 교구도 이 대열에 함께 참여하여 이 시대를 구원하고 이 민족의 소금과 빛이 되어 향도자적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흥해를 건너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승전을 기원합니다.

진군예배 저녁 7시에 드려

충현 성도는 모든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2000년대의 성숙한 교회상과 기독교인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6월 6일부터 20일까지 전개되는 제3차 흥해작전의 진군예배가 오늘 저녁 7시 찬양예배 시간에 있을 예정이다.

2000년대를 향한 구체적인 비전을 받은 충현의 성도들은 이 예배에 모두 참여하여 흥해작전의 행군을 위한 첫발을 함께 내딛어야 합니다.

흥해작전 참모본부는, 6월 6일 새벽 5시에 있을 제1차 천국시민 총동원의 날이 흥해작전의 중요한 행사들 가운데 하나

를 강조하면서, 충현의 성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우선 6일 새벽 5시에는 비상새벽기도회가 열린다. 이때를 기하여 앞으로 20일까지 15일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두신 가나안으로 향하는 우리들의 행진을 방해하는 개인과 가정의 흥해, 교회의 흥해, 사회와 국가의 흥해를 가르기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

비상새벽기도회를 마친 후 아침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한 시간 반 동안 충현

의 전성도들은 교회의 안팎을 대청소하게 된다. 이때 성도들은 교구별로 배정된 청소 구역으로 분산되어 청소해야 한다. 청소소에 필요한 도구는 성도들 각자가 준비해야 한다(남자성도 : 비닐봉지·빗자루·목장갑·집게 또는 나무젓가락, 여자성도 : 걸레·털개·고무장갑, 교회학교 학생 : 비닐봉지·집게 또는 나무젓가락).

참모본부는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힘을 다해 봉사한 성도들에게 아침식사를 대접할 예정이다.

아침식사가 끝나고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교회학교별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시간 동안 천국시민 생활을 주제로 유치부와 초등부는 글짓기와 그림그리기

대회를, 중등부와 고등부는 표어 짓기와 포스터그리기 대회를 갖는다. 이런 대회를 치르는데 필요한 도구는 학생들 각자가 준비해야 한다.

참모본부는 3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흥해작전이 천국시민 생활운동이 될 수 있도록 충현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작전 기간 중 매일 새벽 5시에 있는 비상새벽기도회와 10일, 11일, 12일 저녁 7시에 있는 천국시민 영성잔치와 18일, 19일의 나눔의 센터 등 이 작전의 모든 행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또 본부측은 보다 많은 성도들이 이 작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차량을 동승할 수 있게 되기를 재차 강조하였다.

교구별 여전도회 청소구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루전 디도 아회	본 당	총수	3층	2층	2층	2층	2층	2층	2층	2층	3층	3층	3층	3층	3층	3층
		협동목사실 예배준비실	예배실 (201호) 가열	예배실 (201호) 나열	예배실 (201호) 다열	예배실 (201호) 라열	예배실 (201호) 마열	예배실 (201호) 바열	예배위원회 의실 (202호) 안 내실 (203호)	예배준비실 안 내실	갈릴리움 본당계단 전지역	본당부터 3층계단 4층계단 전지역	예배실 가열·나열	예배실 다열·라열	예배실 마열·바열	
마전 리도 아회	본 당	총수	1층	1층	1층	1층	1층	1층	지하1층	지하1층	지하1층	지하1층	지하1층	지하1층	지하2층	지하2층
		갈릴리움 (101호)	갈릴리움 (101호)	갈릴리움 (101호)	나사렛움 (107호)	베다니움 (110호)	베들레헬움 (112호)	아멘움	할렐루야움	임마누엘움 주변복도	주차장 전역	주차장 전역	주차장 전역	주차장 전역	주차장 전역	주차장 전역
에전 스도 더회	소 석 관	총수	1층	1층	2층	2층	3층	3층	3층	4층	4층	5층	5층	6층	7층	7층
		사무국 (102호) 교육위원회 (103호)	에바다부 (109호) 사랑부 (107호) 주변복도	유치부 (205호) 유년부 (212호) 주변복도	유치원 (201호) 새가정부 (202호) 주변복도	장년3부 (314호) 강의실 (301-302호) 장년1부교사실 (309호)	장년4부 (307호) 초등2부교사실 (308호) 장년1부교사실 (309호)	초등3부 (310호) 초등5부 (303호) 초등6부교사실 (311호)	초등4부 장년2부 (414호) 본당공부실 (401호)	초등6부 한양대실 (402호) 초등6부교사실 (403호) 장년1부 (407호)	고등부 (507호) 한양대 물배개 관양대 (508호) 대학부면회 (509호) 주변복도	대학부 (514호) 직장전도교육부 (602호) 한양대 계단 (510호) C.N.M (511호)	청년1부 집회실 (602호) 주변복도	청년1부 (701호) 주변복도	직장전도교육부 (702호) 주변복도	
한전 도 나회	선 교 관	총수	5층	5층	3층	3층	4층	4층	2층	2층	1층	1층	지하1층	지하1층	지하2층	지하2층
		당회장실 (501호)	행빈관 (504-506호)	회의실 교관실 (305, 307, 308호) 복도와 계단	원로목사실 당회장실 (304호)	기획실 구세위원회 감사실주변 복도 (402-404호)	전도위원회 예배전교회 출판국 도 (405-407호)	도서관 (201-203호)	의료전도회 (205호) 상담실 (206호) 복도와 계단	교역자실 (203호)	교구간사실 및 복도와 계단	교구간사실 만나움 (106호)	갈빈움 (107호)	예추라기움 (106호)	부터움 주변복도 계단	

성경 강해

세상의 빛 되신 그리스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밋 전에 저가 걸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요 9:5-12)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해어릴 수 없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요한복음에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에 충분한 일곱가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모두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이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구원 기적입니다.

1. 불행한 사람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불행 중 가장 큰 불행입니다. 특히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세상의 만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손으로 만져서만이 사물들을 식별할 수밖에 없으니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추측으로만 알 뿐입니다. 인간에게는 때로는 상상하는 것, 공상하는 것, 추측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잘못 추측했다는 자기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소경은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불확실할 뿐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으니 치료해 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눈을 뜬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눈을 뜰 수 있다는 소망을 버리게 되었고 체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나가봐야 별 것 아니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쭈그리고 앉아서 구걸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는 기적을 기대할 필요도 없었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형편이 이 소경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영적 소경으로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추측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도 없습니다. 성경책을 대하더라도 그 속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복음과는 상관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를 얻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체념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들의 영혼이 살 것인지를조차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밖에서 오는 어떤 위대한 힘에 의해서 변화되기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소경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하든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목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두움을 비추주심으로 인해서 어두움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에게 광명을 주신 것입니다.

2. 예수님의 발견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소경을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그냥 지나치시지 아니하시고 침을 뱉어 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그 소경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를 보고 사람들은 ‘누가 내 눈을 뜨게 했느냐’ 라고 물었고, 그 소경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눈을 뜨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으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 속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겼고, 그분께서 자기 눈에 그것을 발랐으며, 실로암 못으로 가서 눈을 닦으라 하셨으며, 그 말씀대로 하였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34).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질병을 낮게 하셨습니다. 소경 바디매오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곧 보게 되었습니다 (막 10:46).

또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를 보면, 관원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지도 않고, 또 갈릴리에서 환자에게 명령하시지도 않고 그 관원에게 ‘내 아들이 살았다’ 라는 말씀으로 낮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반드시 안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부흥회가 끝나면 성도들이 안수를 받으려고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신 것은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너무나 우습고 비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부어서 진흙을 이겼어도 문제였을 텐데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으니 의학적으로 아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도

단순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이 굉장한 것 같아도 한낱 흙덩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 침으로 이긴 진흙을 바르신 것은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침은 입에서 오는 것인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먹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침을 입에서 뱉어서 이긴 진흙을 눈에 발랐다는 것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흙을 눈에 바르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처럼 혹자는 복음이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큰일난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위험하게 보이고 무의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흙을 바르고 씻는다고 낮게 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사흘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4. 순종으로 얻는 구원

소경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보내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가야만 문제가 해결이 됨을 보여줍니다. 실로암까지 보내신 것은 순종에 대한 시험입니다. 순종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 점점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괴롭고 손해가 나도 말씀을 순종하면 큰 것을 주십니다.

소경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저했다면 눈을 뜨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소경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시간도, 재능도, 생명도 바칩시다.

영적 소경인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안을 뜰 수 있어야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캄캄한 죄악 가운데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던 우리들을 발견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발견되어질 때 비로소 그분을 성자 하나님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3. 비합리적 치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한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병고치신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방법은 몇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안수기도를 하심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마 20:

떡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소경이라고 무시하는 거냐?” 라고 하며 쫓고 다니던 지팡이로 덤벼들면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참으로 불합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듯 단순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는 구원의 복음도 아주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적을 행하신 후에 감추시고 나타내지 말라고 하시고 마지막에는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시고 십자가의 고초를 겪으시고 거기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꼭 침으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분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인간 이해를 초월하는 방법으로 구원의 도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게 간단 명료하고

제 3 차 흥해작전 캠페인 (2)

2000년대를 향한 천국시민 생활운동

“힘을 다해 절제하고”

요즈음 나라 살림과 국민들의 형편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풍요로워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신적 미숙에서 오는 잘못된 가치관과 물질관은 대단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들의 마음과 정신, 그리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사치 풍토, 혼란한 가치관, 술, 마약, 담배, 과다 혼수, 과소비, 퇴폐 풍조, 향락 산업 등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마땅히 책임을 느끼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병든 사회와 민족의 장래를 바로 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

교회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

리 교회는 흥해작전의 전 기간을 ‘절제기간’으로 선포하여 상징적으로 몇 가지 운동을 전개하려고 한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는 술, 담배, 마약, 과소비, 과다 혼수, 퇴폐풍조 등을 배격, 추방해야 한다. 이런 사회 현상들은 어느 것 하나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한 케도에서 같이 어우러져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썩게 만들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술 있는 곳에 담배가 있고, 좀 더 진한 만족과 자극을 위해 마약이 주어지

과소비 문제이다. 수입 상품의 70 퍼센트 이상이 소비성, 사치성 상품이라는 통계는 우리 국민의 정신 건강의 상태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인간의 사치를 물질의 소유로 평가하려는 사회 풍토와 병든 마음들을 기독교의 바른 가치관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제라는 삶의 스타일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생활방식이 새로워져야 한다. 우선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철저한 청지기 사상이 회복되어야 한다. 하

술·담배·마약 추방하기,

과소비·과다혼수·퇴폐풍조 배격하기,

시간·물질·말·행동 절제하기

면 대안을 제시하며 어떤 방법으로 국민을 섬겨야 할 것인가. 그것은 어떤 구조의 개선이나 환경의 변화로는 안된다. 먼저 심령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마음의 개혁으로부터 병든 사회와 병든 민족의 마음은 치유가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제2차 흥해작전을 통해서 우리는 15일간 비상새벽기도회를 갖기로 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병든 자신과 사회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 또한 기도만 한다고 모든 것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그 실천방안의 하나로 우

고, 결국은 향락과 퇴폐의 수렁으로 빠진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이런 현상의 주도적인 연령층이 10대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데에 국가와 민족의 위기가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인 병리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범죄, 질병, 음주사고 등 그 국민적인 병폐는 헤아릴 수가 없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모든 기독교인은 오늘날 이런 죽음의 문화를 교회가 어떻게 구원해 내야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심각히 물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런 현상들과 맞물려 돌아가는 풍토는 사치 풍토와

남이 주신 것이니 잘 관리해야 할 뿐 아니라, 사용하는 방향과 목적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한다. 즉 우리가 절제한 분량만큼은 연약한 우리의 이웃에게까지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꼭 물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말한다. 기독교인의 절제란 결국 무조건 아끼자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으로 연약한 이웃에게까지 나누어져서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모든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절제의 바른 정신이다.

성경연구원 90년도 제1학기 수료식
부부교양대학은 5월 29일에

지난 3월 2일에 개강했던 총현성경연구원 90년도 제1학기 강의가 그 동안의 학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저녁 7시 찬양예배시에 수료식을 갖는다.

교사양성부, 주간성경공부(최선의 삶, 예배소서, 민수기, 아모스, 크로스웨이 II, 요한 1, 2, 3서), 아담반 성경공부에 등록하

여 2/3 이상 출석한 545명의 성도들이 수료하게 될 예정이다. 수료자 명단은 본당 로비에서 배부하고 수료증은 예배가 끝난 후 본당 로비에서 찾아가면 된다.

한편 부부교양대학은 지난 5월 29일에 수료식을 가졌다. 이 대학을 수료한 부부는 모두 119쌍이다.

세계선교위원회

실행위원 및 기도위원 모임

세계선교위원회 실행위원 및 기도위원들은 지난 주 5월 27일 선교관 4층 406호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는 현지 선교사들의 보고와 함께 안건 토의의 시간을 가졌는데, 세계선교위원회는 교우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탁하였다.

첫째, 해외에 여러가지 목적으로 출국하는 성도들은 선교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를 방문하기.

둘째, 교회 학교나 여러 기관에

여전도회 연합 특강

6월 8일에 개최기로

마리아·한나·에스터·루디아전도회는 연합으로 특강을 연다. “삶과 신앙”이란 주제 아래 송실대 교수인 안병욱 교수의 강의로 갈릴리 홀에서 6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있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

에서 선교사들에게 편지나 각종 간행물 보내기.

셋째, 매주일 3시 30분에 선교관 406호에서 모이는 세계선교위원회 기도회에 참여하기.

흥해작전을 위한
제12,13교구 집회

제13교구는 흥해작전을 통하여 온 교구 식구들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소석관 307호에서 교구단합대회를 갖는다.

한편 제12교구는 지난 6월 1일 오전 11시에 만나 홀에서 모여 흥해작전 기간 중 총동원을 위한 설명회 및 기도회를 가졌다.

총현실업인선교회
월례회 가져

총현실업인선교회는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에 월례회를 가졌다.

윤용규 목사를 모시고 예배를 드린 후, 사업 계획에 관한 토의를 하면서 앞으로 교인들의 직업 알선을 위해 힘쓰며 이 선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 함께 협력하기로 하였다.

세 기 등

실명제는
우리가 합시다



김 광 선 장로

후진국에 속하는 국가일수록 지하경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개인의 재량권이 많이 작용합니다. 각종 비리와 부정이 판을 칩니다. 우리 나라도 한때는 이 범주에 속해 있었으나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문턱에 놓이게 되어 실명제까지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장담하면서 곧 시행에 옮기려는 계획을 확실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밝은 경제가 출현하고 모든 경제구조는 합리적인 모양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우리 모두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이름만 지어졌을 뿐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사생아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국 경제의 내일을 위해서는 시기상조라는 변명과 함께 말입니다. 세상 일은 정치가가 하는 것이니 그들에게 일당 맡겨 두기로 하고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도 100 퍼센트의 실명제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죄를 숨기거나 가리우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행동하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은 신앙에 근거한 생활이기 보다는 죄를 범하고 그것을 숨기는 삶의 연속입니다. 일흔 번째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확실한 보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고백하지 않은 채 또 다른 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급가야는 신앙적인 지하 경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고 언제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명화 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실명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치의 무기력, 경제의 비실명화, 도덕의 병점, 사회의 카오스가 신앙의 비실명화에서 생긴 열매들이라

고 생각합니다. 소동과 고모라가 실명제를 못했기 때문에 불의의 심판을 받았고 노아 시대의 홍수도 의인 열 사람의 실명화가 안된 결과로 빚어진 사건이 아닐까요. 총체적 난국이라고 규정하는 오늘의 역사를 정치인들에게 떠맡길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다수를 상대하여 말씀하시지 않고 남은 자가 얼마나 믿음으로 행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는 6월 6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흥해작전을 통하여 천국시민 생활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특별히 절제운동을 통하여 우리 삶의 지나친 영역을 모두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비상새벽기도회를 열고 개인과 교회, 그리고 국가를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모든 죄를 벗어 버리고 순도 100퍼센트의 실명제를 수용하는 은총의 시간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실명제는 우리가 먼저 합시다.

다음호 세기등은 김영삼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 총현제자훈련 평가 좌담회

총현제자훈련은 순수 영성훈련

일 시: 5월 27일 오후 4시

장 소: 성경연구원

참 석: 오진국 장로,

서동석 장로

이조웅 강도사

최차용 집사

박문태 집사

이수자 집사

사 회: 김광신 장로



김광신: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25일에 실시된 총현제자훈련이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이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이조웅: 이종운 위임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를 양육하여 직분자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88년도에 제자훈련원을 설립하고 이 훈련원이 주관하여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훈련원은 제자들이 직분을 받기 위해 거쳐가는 한 과정이 아니라, 각자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순수한 영성훈련인 것입니다.

김광신: 그 동안 실시된 훈련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오진국: 제 1회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노라"라는 주제 아래 구원과 확신, 영적 각성의 출발, 그리스도를 닮는 조건, 교회 일꾼의 자세에 대하여, 제 2회는 "진리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진리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

였으며 제 3회는 "천국일꾼이 되자"라는 주제 아래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회마다 기도회와 공동체 훈련도 가졌는데 이를 통하여 참가자 전원이 교제를 나누며 화합할 수 있었습니다.

김광신: 이 강도사님이나 오 장로님께서 직접 진행을 담당하시면서 느끼신 점도 많으실텐데요.

이조웅: 제자훈련을 실시한 지가 벌써 3년째가 되었으니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훈련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보다 많이 진행시키려다보니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훈련생들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진국: 제자들이 이 훈련을 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총현의 성도들은 역시 훈련이 잘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광신: 직접 훈련을 받으신

집사님들께서도 느끼신 점을 말씀해주세요.

이수자: 저는 세 차례의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프로그램이 향상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특히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려면"을 중심으로 진행된 주제토의는 무엇보다 좋았습니다. 제자는 흔히 교사의 지도를 받는 입장인데, 반별로 진행된 이 주제토의를 통하여 참가자들은 교회에 관심을 갖고 각자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저는 반별기도회 때 조원끼리 서로 나누는 기도 제목을 아직까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그 분들을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이런 성도간의 아름다운 교제는 제자훈련과 같은 특별한 행사를 통하지 않고는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박문태: 저도 주제토의가 신설된 것이 교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속했던 반에서 시계탑 설치에 관해 토의했는데 주간총현을 보니 시계탑을 설치한다는 기사가 실렸더군요. 제자훈련이 성도들

의 작은 의견이 모여서 교회측에 전달하는 신문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주 안에서 일체감을 느꼈습니다.

이조웅: 네, 이 주제토의는 교회의 발전을 위해 특별히 신설된 것인데, 그 반응이 좋아 무척 호뭇합니다.

주제토의 시간에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취합, 분류하여 교역자회의 때 보고함으로써 교회는 교회 행정에 성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차용: 저에게는 이 훈련이 직분자로서 언행을 조심하면서 앞서가는 생활을 해야 하겠다는 각오를 하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훈련기간이 너무 짧아 아쉬웠습니다. 제자훈련원은 내년도 훈련 일정을 짜실 때 2박 3일 정도로 늘려서 직분자들이 집중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배려로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중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동석: 제자훈련은 해를 거듭하면서 이제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직분자의 훈련 참가를 의무화 하여

훈련을 받지 않는 제자들에게는 직분을 주지 않았습니니다. 이제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었으므로 이런 속박을 푸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수자: 제가 배정받은 반의 조원은 30명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반별기도회 시간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정해진 시간 안에 기도 하려다보니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훈련원은 반 배정을 할 때 한 반에 아무리 많아도 15명이 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조웅: 이 훈련을 한 번 실시하는 데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봉사요원의 수가 극히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찬양이나 율동을 지도하거나 함께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신: 3년간의 시행으로 이제 성숙단계에 들어선 제자훈련이 참된 영성훈련으로서, 총현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고 교회성장과 교인들의 영적 각성에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등5부 작은 음악회
5월 20일에 가자

직 원 모 집

초등5부는 지난 5월 20일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찬양대의 합창, 학생들의 악기 연주, 독창, 중창, 어머니 중창단의 특별찬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지난 부활절과 함께 다시 드리게 된 초등5부 수요일예배는 오후 4시에 찬양예배로 드리고 있다.

우리 교회 사무국은 전기보안 담당자, 약전음향기사, 냉동기기사 약간명을 모집한다.

•자격: 고등학교를 졸업한 세례 교인으로서 기사자격증 2종 이상 취득한 자

•제출서류: 교인증명서 1통, 자필이력서(사진 첨부)1통, 자격증사본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모집기한: 6. 3 ~ 6. 17

•제출처: 총현교회 사무국 총무과(소석관 102호)

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56 문 제3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3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 비록 사람에게서는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설 명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농담하거나 경솔히 불려서는 안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망령되이'라는 말은 '거짓되게', '헛되이', '아무 목적 없이'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그분의 영광과 성품과 속성을 생각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질 문

1.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사용할 적은 없는지 사례를 들어 보세요.
2.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속성이 나와 있는 성경구절을 찾아보세요.
(예: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3. 제3계명의 바른 뜻을 공부하신 대로 다시 정리하여 적어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23 과 제 3 계명

성경: 시72: 18, 19

요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출20: 7)

찬송: 9, 30

제 53 문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 54 문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제 55 문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무엇이든지 모독